

2026년
2호

KPF 미디어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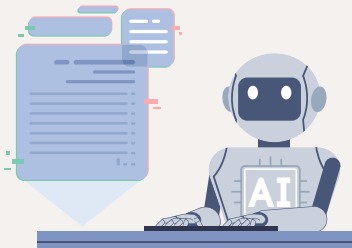
K P F Media Brief Webzine

AI를 사용하면 기사 품질이 좋아질까?

- 완성도는 높았으나, 독창성은 부족했다 -

전창영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 ✓ 기자 9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 AI를 활용한 기사 품질은 62.5점, 기사 구조와 가독성 등 완성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 반면 새로운 관점과 차별화를 평가한 독창성 점수(50점)는 완성도(67점)보다 낮아, AI 활용만으로 기사 내용의 새로움이 강화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
- ✓ 기자들은 AI를 분석과 기사 작성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질문은 평균 4회 수준에 그쳤고 후속 질문 비율도 34.7%로 낮은 수준을 보임
- ✓ 특히 팩트체크와 보완 취재를 위한 AI 활용은 부족한 수준으로 검증 영역에서의 활용 확장이 과제로 제시
- ✓ 이번 실험은 AI가 기사를 빠르게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관점과 차별화는 여전히 기자의 고유 역할을 보여줌



생성형 AI와 LLM의 확산은 뉴스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사 초안 작성이나 요약·번역, 자료 정리처럼 과거에는 기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던 작업 상당수가 이제는 AI를 통해 몇 분 만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뉴스룸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반복해서 제기된다.

“AI를 사용하면 기사의 품질이 좋아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대나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원고는 기자들이 AI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 품질의 어떤 요소에 도움이 되었고, 어떤 영역에서는 한계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¹⁾

■ 기자 98명, 동일한 조건에서 AI 활용해 기사 작성

실험은 국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험에 응답한 국내 기자 98명에게 동일한 기사 작성 과제를 제시하고, AI 챗봇을 활용해 기사를 완성하도록 했다. 제공된 자료는 최소한의 기초 정보로 제한됐으며, 추가 정보 탐색이나 보완은 AI 활용을 통해 수행하도록 설계됐다.²⁾ 이 실험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기사의 품질이 좋아질까’이다. 평가는 기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생산한 최종 기사와 활용 과정을 모두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자들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 AI에게 던지는 질문 유형과 진행 패턴을 함께 분석했다. 질문은 대화 기록에서 ‘기자:’로 시작하는 발화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진행 양상은 대화 턴 수, 후속 질문 비율, 주제 변경 횟수 등으로 측정해 단발적 활용인지, 맥락을 누적해 확장하는 활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 AI에 질문은 던졌지만, 되묻지는 않았다

기자들의 AI 챗봇 활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자 한 명이 AI에게 던진 질문은 평균 4회 남짓이었다. 거의 질문을 하지 않은 기자와 10번 이상 질문한 기자가 함께 존재할 만큼 활용 방식의 차이는 컸다. 절반의 기자가 3회 이하의 질문을 통해 기사를 작성한 반면, 일부는 최대 16회까지 질문하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진행 패턴을 보면, 대화는 전반적으로 짧고 제한적이었으며 후속 질문 비율은 평균 34.7%에 그쳤다. 이는 다수의 기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을 깊이 확장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얻는 방식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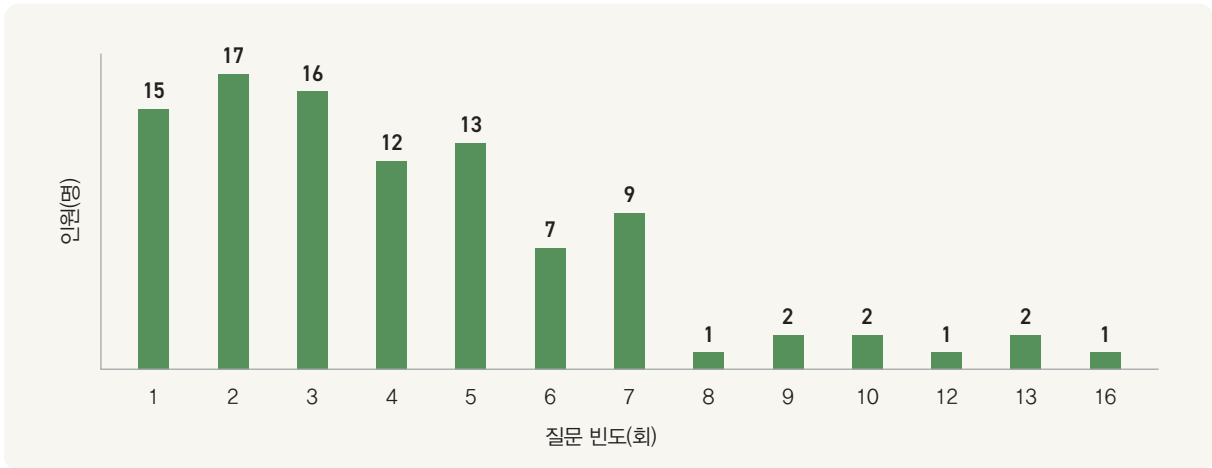
표 1 진행 패턴 통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대화 턴 수	4.05회	3.09	3회	16회
후속 질문 비율	34.7%	34.8%	33.0%	100%
주제 변경 횟수	1.45회	1.51	1회	7회

1) 본 원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체연구 <언론사를 위한 오픈소스 LLM 활용 방안(전창영·이종혁·백강희)> 일부를 재가공해서 작성한 것임.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구체적인 내용은 본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 ‘부록’ 참조.

그림 1 기사 작성 시 응답자들의 AI 대화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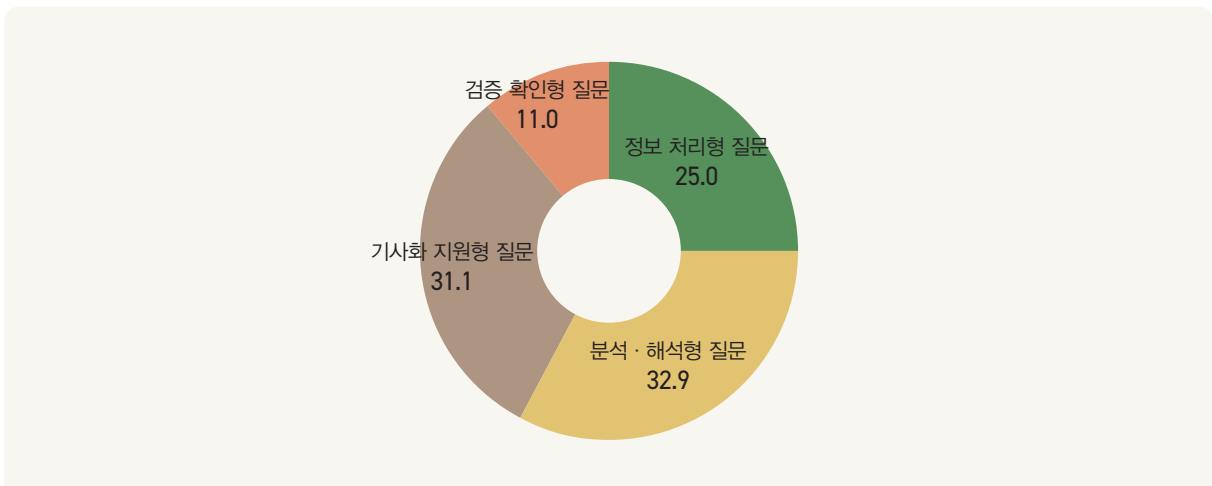
질문 유형별로는 분석·해석형 질문이 가장 많았고, 기사화 지원형과 정보 처리형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기자들이 AI를 번역과 요약문 작성 등 분석과 기사 작성 보조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팩트체크를 위한 질문은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절반 이상의 기사는 AI를 사실 확인 용도로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인 검증 영역에서 AI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향후 과제로 드러났다.

표 2 질문 유형 통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정보 처리형 질문 수	0.98회	0.94	1회	4회
분석·해석형 질문 수	1.29회	1.25	1회	5회
기사화 지원형 질문 수	1.22회	1.49	1회	6회
검증 확인형 질문 수	0.43회	0.76	0회	4회

그림 2 평균 질문 유형 비중

(단위: %)



■ 번역·요약 중심으로 활용, 취재 확장은 제한적

기자들의 AI 활용 정도는 평균 58.3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시간과 기초자료만 제공된 조건을 고려하면, 이는 기자들이 주어진 과제의 핵심 요구사항을 절반 이상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기자는 32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해 시를 활용한 취재·보도가 충분히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취재 수행 능력은 유지됐으며, 이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시를 활용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번역·요약이 가장 높은 성과(73.4점)를 보인 반면, 심층 정보 탐색과 보완 취재는 40점대 초반에 그치면서 시를 활용한 취재 확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차별적 관점 역시 50점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즉 시가 정보 정리와 요약 등 기본 기능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기사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언론인 대상 교육과 활용 전략이 시를 '취재 확장 도구'로써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3 AI 활용 정도 평가 결과

평가 항목	배점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환산점수 (100점 만점)
심층 정보	5점	2.15점	0.513	2점	4점	43.0점
번역·요약	5점	3.67점	0.733	4점	5점	73.4점
보완 취재	5점	2.17점	0.612	2점	4점	43.4점
차별적 관점	4점	2.00점	0.626	2점	3점	50.0점
AI 활용 정도 총점(40점) ³⁾		23.3점	4.640	24점	32점	58.3점

그림 3 AI 활용 정도 평가 결과

(단위: 점/100점 만점)



3) AI 활용 정도 측정을 위해 총 아홉 가지 항목을 사용했고, 본 원고에서는 핵심 평가 항목 4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음.

■ 기사는 정돈됐지만, 새로워지지는 않았다

최종 기사 품질 평가 결과, 참여 기자들의 기사 품질은 평균 62.5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엄격한 평가 기준과 제한된 시간·자료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사 완성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사 작성 역량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가 작게 나타난 것도 기사 품질이 개인 간 큰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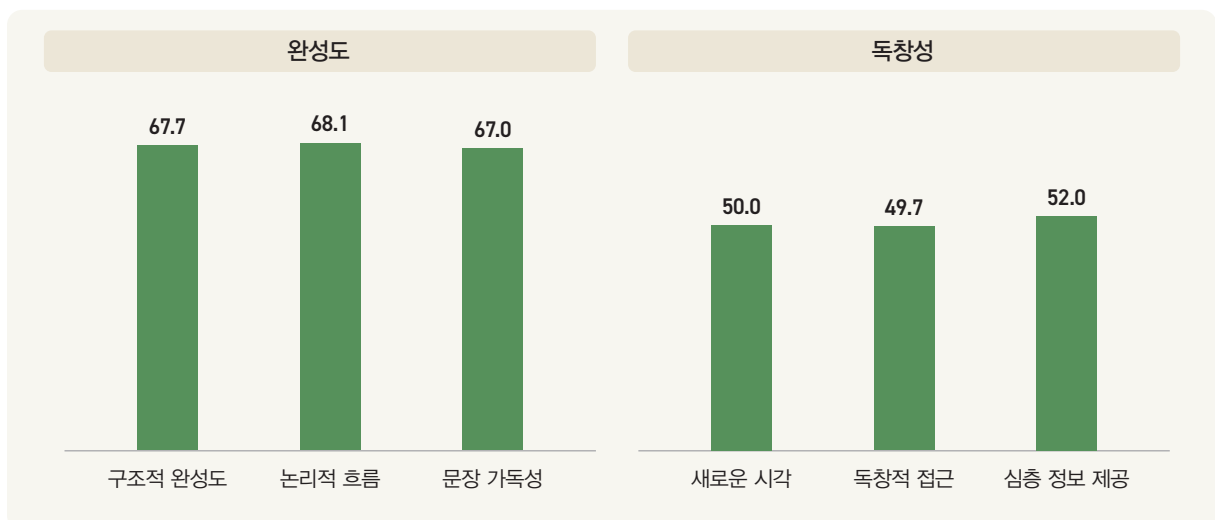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구조·논리·가독성 등 완성도 영역은 모두 67점 내외의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 반면, 독창성 영역은 50점 안팎에 머물렀다. 결국 시를 활용해 기사의 구조와 문장은 안정적으로 정리했지만, 새로운 관점이나 차별화된 시각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빠른 시간에 기사 형식과 전개는 잘 갖췄지만, 새로운 관점이나 차별화된 접근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시는 기사를 논리적으로 '완성'했지만,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 셈이다.

표 4 기사 품질 평가 결과

평가 항목	배점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환산점수 (100점 만점)
완성도(20점)						
구조적 완성도	7점	4.74점	0.484	5점	6점	67.7점
논리적 흐름	7점	4.77점	0.469	5점	6점	68.1점
문장 가독성	6점	4.02점	0.197	4점	5점	67.0점
독창성(20점)						
새로운 시각	7점	3.50점	0.558	4점	5점	50.0점
접근 방식 차별화	7점	3.48점	0.557	3점	5점	49.7점
심층 정보 제공	6점	3.12점	0.378	3점	4점	52.0점
기사 품질 총점(40점)		25.0점	1.62	25점	31점	62.5점

그림 4 기사 품질 평가 결과

(단위: 점 / 100점 만점)



■ 시사점

이번 연구는 국내 기자들의 A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AI가 이미 효과를 보이는 영역과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는 영역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줬다. 기자 9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최종 총점은 평균 54.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과 최소한의 기초자료만 제공된 조건, 그리고 엄격한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중간 수준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사 품질 영역에서 평균 62.5점을 기록하고, 구조적 완성도(67.7점), 논리적 흐름(68.1점), 가독성(67.0점) 등 완성도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점은 한국 기자들의 전통적인 기사 작성 역량이 AI 환경에서도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이는 AI가 기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이미 축적된 저널리즘 역량을 보조하고 효율화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AI를 활용한 취재 확장과 독창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확인됐다. 심층 정보 탐색과 보완 취재는 각각 43.0점, 43.4점 수준에 머물렀고, 기사 품질 평가에서도 독창성 관련 항목은 새로운 시각 50.0점, 접근 방식 차별화 49.7점, 심층 정보 제공 52.0점으로 완성도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AI가 기사 작성의 형식과 전개를 빠르게 갖추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새로운 관점이나 차별화된 접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AI 활용만으로 기사 내용의 '새로움'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지는 않았으며, 이 영역은 여전히 기자의 기획력과 해석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활용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기자들이 AI에게 던진 질문은 평균 4회 수준였고,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후속 질문을 이어간 비율은 평균 34.7%로 낮았다. 질문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AI와의 상호작용을 맥락적으로 확장한 경우는 기자 개인 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질문 유형을 보면 분석·해석형(31.9%)과 기사화 지원형(30.1%)이 가장 많이 등장해, 기자들이 AI를 분석과 기사 작성을 돕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팩트체크 질문은 평균 0.43회에 그쳤고, 절반 이상의 기자가 사실 확인 목적으로 AI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인 검증 영역에서 AI 활용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한국 언론계의 AI 전환은 아직 출발선에 있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기사 완성도는 이미 일정 수준까지 확보됐기 때문이다. 또한 AI 활용 효과성은 평균 32.9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일부 기자는 80점에 근접한 성과를 보이며 교육과 경험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AI 활용 역량이 개인의 숙련도와 활용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AI를 활용한 저널리즘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AI 도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 검증·보완 취재·관점 차별화 등 기자의 핵심 존재 가치를 AI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략적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록: AI 활용 취재보도 실험 과제물

▲ 과제 주제

- WHO 산하기구 PMNCH가 2025년 3월 발표한 기후변화가 산모·신생아·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를 취재·보도 과제로 설정
- 조사 시점 기준 국내 보도가 거의 없는 주제를 활용해 기사 작성 요청

▲ 과제 설계

- 참여자들은 제공된 PMNCH 공식 URL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추가 정보 탐색, 번역·요약, 기사 작성 수행
- 연구진이 설계한 내장 AI 챗봇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외부 AI 서비스 사용은 금지
- AI 챗봇과의 모든 대화는 자동 기록(질문 횟수, 대화 내용, 시간 정보 등)

▲ 과제 환경

- 실험에 사용된 AI 챗봇은 Perplexity AI의 Sonar Pro 모델 기반
- 실시간 웹 검색이 가능한 LLM으로, 정보 검색·번역·요약·팩트체크·기사 작성 지원 기능 수행
- 챗봇은 '저널리스트를 돕는 AI 어시스턴트'로 설정돼 맥락을 유지하며 대화형 응답 제공

2026년
2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edia Brief Webzine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남정호

기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2월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699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6

〈KPF미디어브리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